

교정 밖 풍경화

유 정 수 인천 인향고등학교 교장

유구한 역사 간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팔미도 등대

팔미도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외롭게 떠있는 섬으로 이곳 사람들에게는 '여달(八)미'라 불렸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팔산(八山)'으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섬의 모양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듯하다. 저녁노을이 질 무렵의 팔미도는 스쳐 지나가는 배의 모습과 잘 어우러져 인천팔경(仁川八景)의 하나로 꼽힌다. 팔미도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있는데 해발 71m 섬 꼭대기에 프랑스 기술로 세워졌다. 1903년 7.9m 규모의 등대에서 90축광을 내는 석유등이 불을 밝히자 이곳을 지나는 어부들은 무인도에 도깨비불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 때엔 3명의 KLO 부대원이 3명의 연합군과 함께 어민으로 가장하여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고 팔미도 등대를 탈환하여 등대 불을 밝히는 과정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감춰졌다가 1984년 미국 육군성의 기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알려지게 됐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클라크 대위는 팔미도 등대를 가동시킨 뒤 '킬로이 다녀간다'는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칩, 해송, 담쟁이넝쿨, 패랭이꽃 등이 자라고 있는 팔미도 등대는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채 인천시 지방문화재(제4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있고, 현재는 26m의 높이에 전망대와 10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천년의 빛)과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기준국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프리즘렌즈 대형 회전식 등명기의 빛이 50km까지 뻗어나가며 새 천년을 밝히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그린비치(월미도)

“지금은 인천의 대표 문화의 거리”

그린비치는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상륙지점으로 지금의 월미도다. 월미도는 생김새가 반달의 꼬리 모양으로 생긴데서 유래한 섬이었으나 1920년대 초 매립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陸繫島)가 되었다. 지금은 월미도 테마파크가 들어서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워 항구로 발전했지만 역사적으로 영국 순양함이 1895년 월미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등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심해 해상교통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곳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대사에 비어수로(飛魚水路)가 나오는데 이 수로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뱃길이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바다 중간에 위치한 팔미도의 등대를 1950년 9월 15일 켈로(KLO) 부대원들이 불을 밝힘으로서 260척에 달하는 유엔군의 함대가 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데 일조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지난 9월 9일 제 66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월미도에서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 인천에 위치한 인항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관하였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에 이어서 상륙작전 재연 행사가 벌어졌는데 물속의 적 잠수함을 탐색 격멸하는 대잠작전부터 해군 특전단 요원이 공중으로 침투하는 해상강하와 적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헬기로 철수하는 스파이락을 선보였다. 본격적인 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력지원이 전투함과 전투기를 통해 시작되고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에 이어 상륙장갑차와 상륙주정을 이용한 한국해병과 미국해병이 월미도에 상륙하면서 상륙작전 재연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지난해부터 인항고는 조국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인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함 등 17척의 해군함정 및 21대의 상륙돌격장갑차와 15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를 펼쳤다.



근로자들의 땀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받은 모든 것 돌려주고파

인향고등학교는 인천항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설립한 최초의 인문계 고등학교다. 인천 항만에서 일하는 인천항운노동조합원들이 40여 년 동안 모은 기금으로 지난 1988년 개교했다. 지금까지 사학의 설립 역사가 그래왔듯이 인천항운노동조합원도 아무런 혜택이나 요구 없이 지금까지 장학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정수 교장은 인향고 설립 초기부터 근무한 설립멤버로 이순우 행정실장과 함께 두 명만이 인향고의 처음을 알고 있다. 인향고의 시작이 나눔에서 시작했듯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사랑의 잔돈 모으기' 행사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도 남다른 건학이념을 이어 받은 결과다. 매주 금요일 시행되는 '사랑의 잔돈 모으기' 행사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돕기 등과 교내 장학금 지원에 쓰이는데 유정수 교장도 은사의 도움으로 대학을 진학해 교직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학급조회를 통해 강조한다. 교육 신념 또한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인향고의 교육 방향도 인문학적 감성과 창작력을 키우는 문예창작 학급과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기술 공학융합 학급을 선별하여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이 인향 스마트 프로그램(High Inhang SMART Program)을 운영하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유정수 교장은 인천에서 태어나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았고 이후로도 지금까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인천토박이다. 누구보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이며 교육자로 자신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인천의 후학에게 모두 전해주고 있다.

